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11

Nov. 2023
Vol.11 No.11

통권 111호

- 2023 주요 뉴스 특집
- 감사의 글
- 주안에 훈련
- 새가족 / 교육부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주안에 News InChrist 01

주안에 News InChrist 02

주안에 News InChrist 03

주안에 News InChrist 04

주안에 News InChrist 05

‘하나님의 섭리, 감사의 자취’

■ 되돌아보는 2023 주안에 역사

늘 그렇듯이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언급하기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롤러코스터처럼 빠른 회전을 반복한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을 되짚어보

는 시간을 고집해 본다. 2023년 주안에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요 뉴스라는 제목을 붙이려하니,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비롯해서, 소 채플 신축 공사, 선교 세미나, 영커플 부흥, 세마 장학회, 활발해진 주안에 호프 사역, 제직 세미나, 멕시코 단기선교 등 모두가 감사의 내용들이 머릿속을 채워갔다.

결국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건 감사의 느낌일 거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가슴 한켠이 훈훈해짐을 느끼며, 주안에교회가 가는 앞으로의 10년도 감사로만 채워져서, 그때가 되면 20대뉴스, 30대 뉴스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관계 특집 2~9면>

| 오희경 기자 |

주안에 News InChrist 04

주안에 News InChrist 05

주안에 News InChrist 06

주안에 News InChrist 07

주안에 News InChrist 08

주안에 News InChrist 09

주안에 News InChrist 10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창립10주년 감사예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마음을 품고 첫 예배를 드렸던 주안예교회가 어언 10 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30일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렸다.

최혁 목사는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10년을 말씀 하나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축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권면했다. 특별순서로 남가주 장로성가단의 찬양이 은혜롭게 들려졌으며 풀리 신학대학교의 원로교수인 박기호 교수는 ‘소명, 약속, 순종’ (창세기 12:1-5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모닥불 앞 밤 지새며 소채플 공사장 지킴이 동참

■ 코람데오 추수감사절 모임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코람데오 청년부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식사 교제를 하며 교회 건물 건물 보초 서기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장도 보고, 재료 손질을 하며 요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풍성한 저녁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

게 준비한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재미있게 대화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함께 교회 주차장으로 나가서 모닥불에 웅기종기 모여 교회 건물 보초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풍성한 야식을 준비하면서 먹고, 추운 사람들에게 핫팩과 담요와 따뜻한 음료도 나누고, 순찰도 돌다 보니

어느덧 새벽 1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혼자였다면 많이 길고 힘들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함께 모여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초 서기였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어느덧 추억이 되어있을 보초 서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 있을 성전을 상상해 보며 감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성배 성도 |

■ 2023년 감사 한마디...

최일 안수집사 아내와 저는 2년전쯤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넘게 가장으로 내 가정을 이끌다가 90이 넘으신 어머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창피하게도 67세가 넘는 이때까지 어머니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불량배 같이 행동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아들인가?" 생각하며 그런 제모습을 보며 실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2년여 동안의 연단 과정이 지난 지금, "공경"이라는

말이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어머님을 존경하며 또한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영화 집사 남편 전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 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일 좋은 것으로 신실하게 응답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와 나의 가정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소채플 신축 공사

지난 3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벨리채플 현장에서는 소채플 기공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차세대 일꾼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교육관 건축이, 그동안 기도하고 노력했던 성도들의 바람대로 이제 실제로 이루어져 그 공사의 첫삽을 뜨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장년부에서도 여러 용도로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 소채플이 완공되고 나면 더욱 많은 공간에서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00여 성도가 원근각처에서 모인 가운데, 최혁 담임목사는 역대하 2장 1절~3절, 역대상 28장 5절~6절의 말씀을 통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전했다.



250여 시니어 '행복학교' 내년 봄학기에 만나요

■ 주안에라이프 중강예배

주안에라이프가 11월 29일 발표회를 끝으로 2023년 하반기 학기를 마무리했다. 매주마다 밀려드는 수강생으로 행정팀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주안의 라이프였다. 이번 학기는 주안에라이프 오픈 이래 최대 수강 인원이 등록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250여 분 이상의 벨리 어르신들의 점심을 공급했다.

18과목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20여 명의 장금이 팀장과 그의 봉사팀원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새벽부터 오후까지 주방에서 준비하고 다듬으며 맛있는 식사를 공급하려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했다. 특히 원예반은 나형철 장로

의 열강으로 첫 강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라인댄스는 헬렌 선생님의 보강으로 2개 반이 성황을 이루었다. 바둑반에서는 매주 4개 팀이 기원을 방문하는 느낌으로 정숙히 두었다. 내년 학기 일정은 2024년 3월 6일 개강이며 후 5월 15일 중강 예정으로, 벌써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 공태용 장로 |

■ 2023년 감사 한마디...

홍영표 안수집사 7년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큰아들을 놓고 기도하였고, AMPM 9시 기도팀과 코로나 팬데믹부터 교육관 건립을 놓고 기도했는데 올 해 두가지 모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가정에는 평화를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성은A 성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시고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혁 목사님을 통해 들음으로써 다시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심

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과 서로의 연약함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풍성해가는 교제가 감사합니다. 매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권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주안에교회의 한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선교세미나

7월 21일(금) 저녁 7시 45분부터 7월 23일(주일)예배까지, 그리고 7월 28일 금요일 저녁부터 7월 30일 주일예배까지 모두 세분의 강사를 모시고 주안예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를 가졌다. 주안예교회가 창립 한지 10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 주심으로 70분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었고 또 올해 안으로 더 많은 선교지를 품어 모두 100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선교는 무엇이며 또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강사님들을 통하여 들음으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의 꿈을 품을 기회를 제공했다.



■ 감사의 글

‘열거할 수 없는 어려움 내게 인내와 소망을’

어느덧 2023년 11월 말을 지나며 올해를 돌아봅니다. 유난히 금방 지난 것 같은 2023년은 뭔가 쉴 새없이 달린 것 같아 나의 플래너를 들여봅니다.

올해 초 “하나님의 섭리” 특별새벽 예배로 2023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림을 그려 가셨습니다. 잠시 건강으로 찬양팀을 쉬고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으로 기도 해 보라고 제안 받고, 나름대로 지금 형편에 멀리서 가족들이 다 같이 1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라며 위로와 함께,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데 더 이상의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자녀의 엄마로서 모든 일의 계획을 세워 사는 것이 익숙했던 나에게 올해는 특히 하나님의 섭리- 삶의 방향, 속도, 시간.. 모든 삶의 키를 하나님이 들고 이끌었습니다. 돌루스(노예)의 삶 = 모든 삶의 방향의 키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를 넘는 방법으로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와 주일학교를 섬기고, 1부 마하나임 성가대로 세우시며 라이드로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당연히 차량 1팀, 2팀으로 주일 1부예배를 온가족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내 한치 앞밖에 못보는 계획을 설계하며 기도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온 식구를 향한 훈련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 55:8-9)

지난 해 멕시코 선교 가기 전 “열국의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올 여름 멕시코 선교를 가면서 참 할일이 많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VBS와 미션세미나 행사와 함께 아이들을 섬기며 내 안에 구석구석의 하나님의 대한 질문들을 채우시며 신앙의 시선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 무렵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평사원훈련으로 무장시키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내 마음을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내 생활의 문제들도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 6:33-34)

2023년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여를 두 목사님 가정과 10년 만에 이뤄진 reunion 으로 2박 3일 거의 수련회 수준의 귀한 만남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다시 확인하는 만남 뒤로, 두달 뒤 동역자 사모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한달 뒤 나의 영적 아버지 목사님이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9월, 10월 타주로 장례예배를 참석하



이현주 집사

고 나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 무엇을 위해 /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들이 레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산 삶은 참 아름다움을 보며 남아 있는 자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2023년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환난과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젠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구원에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20살 이후의 삶은 주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온전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은 감사 밖에 없음을 체험하는 중입니다. 두렵고 떨릴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My Lord 내 삶의 주인되신 주님때문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SOLA JESUS/ FAITH/ GRACE !!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영커플 부흥 물결

주안에교회 30~40대 그룹 '아가페 영커플' 4개목장, 50여명의 목원들이 신앙과 삶, 젊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최근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교회의 분위기를 젊고 활기차게 바꿔가고 있다. 급년들어 주안에교회 공동체에 새가족이 된 영커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각자의 성장과 신앙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교회에서 받은 첫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제가 이들의 마음에 이 곳이 바로 자신들이 꿈꾸던 교회라는 생각에 주저 없이 합류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전체 영커플목장이 모여 친교를 나누는 '안놀고 뭐하니'가 열려,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갔다.

■ 새가족 글/ 이경라 성도

한치 오차 없이 날 부르신 하나님

드디어란 말처럼 짜릿한 순간이 있을까! 큰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취직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 기숙사로 가면서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왔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어느 엄마는 응급실로 실려 가기도 했다는데, 혼자 즐기는 모닝커피 한잔에 행복을 마구 느끼는 나는 모성에 부족 엄마인가보다. 아무튼 빈 둥지의 쓸쓸함은 즐기기에 충분했고, 2004년 이민을 오면서 운동하는 두 아들 돌봄, 직장인으로, 아내로서 빼곡한 시간을 전력 질주했었는지, 긴장이 풀리고 나니 몸 이곳저곳이 아팠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는 '주안에교회'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안에교회 첫걸음을 운동으로 오게 되었다. 여름 한 가운데 시작한 수요일 첫 배드민턴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언니와 통화를 하고 집에 가려니, 아뽀싸! 주차장 교회 출구가 모두 닫혔다. 설마 나갈 곳이 없겠냐며 별걱정 없이 교회 뒷길로 차를 운전해 내려갔더니, 낯선 들판에 코요테 두 마리가 어슬렁 거린다. 슬슬 겁이 났다. 배드민턴 올 때 보이지 않았던 예배당 위 커다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 생각하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던 나를 위해 그리하셨나 보다.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 저 집에 가야 하는데 교회 출구가 다 닫혔네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 문 좀 열어주시면, 제가 신앙 생활을 할지 안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저 좀 도와 주세요. 남편도 전화를 안받아요." 이곳저곳으로 전화 끝에 양태섭 장로님이 한걸음에 오셔서 주차



장 교회 문을 열어주셨고, 얼마 후 신앙도 없는 저를 양영 권사님은 목장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즐거운 저녁을 함께 했다. 주안에교회와 나의 첫 인연은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되었다.

"케일라,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말해봐. 내가 신앙인으로, 의학을 바탕으로한 의사로서 다 설명해 줄게." 믿음이 없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를 해준 수잔 언니와 윌리엄 형부는 만날 때마다 신앙 간증과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데, 감사함과 부담감이 공존했다.

"형부, 교회에 가보고 싶어도 일요일 하루 쉬는데, 제겐 시간적으로도 지금은 너무 부담이에요." 하나님은 내 핑계를 알고 계셨나보다. 잘 다니던 직장에 일이 생겨서 사표를 내게 되었고, 주일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평생 백수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겠다고 이력서를 보냈는데, 어느 분이 인터뷰를 일요일에 해도 되냐고 해서 괜찮다 했다. 인터뷰할 장소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OMG! '주안

에교회'다. 그렇게 주안에교회에서 짧은 job 인터뷰를 하고, 열떨결에 첫 예배를 드렸고, 예전에 없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 등록을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시던지, 감사했다. 그동안 팔꿈치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교회 등록하면 치료해 주신다던 정명안 집사님은 환한 얼굴로 드디어 왔냐며 여기 저기 정성스레 치료를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나왔다.

삶이든, 사람을 만나든, 일이든 항상 딱 떨어지는 '공식'을 좋아한다. 갑자기 백수가 되어 불안한 내 미래에 많은 고민이 있던 요즘이었다. 첫 예배를 드린 날, 최혁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제목은 '성경의 공식(1)- 미래를 바꾸고 싶다'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를 위한 계획된 맞춤형 설교인가! 신앙적 지식이 없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지,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첫 예배에 저를 오게 하신 한치의 오차 없음에 놀라기만 하네요. 문밖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문 손잡이를 잡고 있지만, 아직 그 문을 활짝 열기에는 저는 미약해요. 지금 이 시간을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앞으로의 제 미래와 불안정한 제 믿음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가꾸어 주세요. 가시밭길을 건너더라도, 오늘 힘들게 잡은 이 문만은 놓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사주신 보바주스를 맛있게 마시고, 주차장까지 목사님과 함께 걸어 나오는데 코 끝이 또 다시 찡해졌다. 제가 뭐라고, 이런 멋진 날을 선물 하셨습니까!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세마 장학회

지난 8월 25일 밸리채플 금요영성예배시간에 제5회세마장학금수여식이 열렸다. 암송 3년차를 맞은 금년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재학생, 선교사 자녀 등 45명이 참가해 7개월간 미리 주어진 성경 7개 장을 암송했다. 이번에 암송한 성경 말씀은 시편46편, 시편119:97-106, 갈6:1-10, 엡4장, 벧전1장, 요한일서1장, 롬12장(보너스 크레딧)으로 전체 다 암송한 학생이 17명이나 되었다.

특히 매튜 마군(4학년)군이 로마서 12장 전체를 유창하게 암송, 박수를 받았다. 금년 제5기 주안에장학회에도 29명의 위원들이 3만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기부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차세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 KIDZ 추수감사예배

작지만 의미 있는 '벽돌 한장' 감사헌금

11월 19일(주일) 교육부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대다수의 키즈 아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는 영적 세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곧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채플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더 뜻깊은 해인데요, 이 소채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되고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함께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은 풍요 속에서 살

고 있습니다. 오늘 한 끼를 걱정하거나,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할 걱정을 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해서 슬퍼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가난을 아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여나 이 소채플이 우리가 현재 누리는 풍족함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마음을 모아 우리 키즈 부서 아이들도 '벽돌 한 장' 특별헌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은 아낌과 심부름, 선행들을 통해 얻은 reward(보상)를 하나님께 특별헌금으로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 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크

Special Offering
for the New Chapel

Name: _____

- 1) Take out trash ☐
- 2) Fold Laundry ☐
- 3) Organize shoes ☐
- 4) Help siblings with homework ☐
- 5) Help cook a meal ☐
- 6) Write/recite a blessing prayer for your family ☐
- 7) Read Psalm 1-3 out loud ☐
- 8) Make his/her own bed ☐
- 9) Give a nice message to your hard working parents :) ☐
- 10) Sweep the floor/Vacuum your house ☐

Every time your child completes a task, please give them \$1, so that they can give to the LORD as a special offering for the chapel.



거나 작거나 크기에 상관없이 소중한 여겨야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겼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자 친구들과 나누어 먹고 싶은 음식을 개인별로 집에서 준비해와서 Thanksgiving banquet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배운 설교내용을 토대로 O/X 퀴즈도 함께 풀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달여 남은 뜻깊은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키즈 부서의 추수감사주일이었기를 소망합니다.

| 김민재 전도사 |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주안에호프 사역 활발

간힌 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소망과 복음을 향한 창문을 열어 주기 위한 주안에교회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몇몇 성도들이 이미 교도소 수감자들을 찾아가 면회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준비해 오던 중 지난 2월5일 주일예배 후 30여명의 팀원들이 모여 정식으로 '주안에호프'를 출범한 것이다. 주요 사역으로는 남가주와 중가주에 산재한 주교도소에 수감된 한인 재소자들 가운데 선정된 현재35명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신앙서적 보내고, 중보기도 하는 것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종신형 등 장기 수형자들로, 가족이나 연고가 없이 경우가 많다.

■ 주안에삶 수료

순종의 마음을 주시려고...

주안에삶을 마치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려할 때 바쁜 삶과 육아를 한다는 핑계로 주춤했던 나의 걱정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은혜받는 주일 설교를 듣고 용기내어 세상에 나아간다고 다짐해도 몇 일후면 세상으로부터 무너졌던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안에삶을 통해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을 공유하고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리더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매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과정은 누가복음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깊게 알게된 인물은 사개오였습니다. 키가 작으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던 상황에서도 보고자 노력하였고 세리장으로 부정한 죄를 짓고도 이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자 노력하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은 교제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한정적인 만남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 저보다 어리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는 분들도 알게되었고, 제가 힘들어하는 삶의 일부를 이미 겪으신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기에 많이 위로받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과 교회 모임으로 다시 주안에삶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주안에삶 3권 과정 안에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찬양팀 사역을 한 기억과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의 마음을 주시려고 이 시간을 계획하신 것 같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진실로 은혜 받음을 고백합니다!



윤하권 성도

■ 주안에말씀 21기

기쁨으로 시작, 감사로 마무리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그동안은 성경을 뜬문뜬문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시편 따로 잠언 따로 이렇게 읽다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시작할 수 있었고 무사히 성경통독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와 함께 시작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은혜로운지 다시 한 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통독을 통해 받은 은혜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경 읽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달콤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위에 모든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네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강은영 집사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5개월에 가까운 시간 어깨 수술로 일을 마치고 바로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독했다는 기쁨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통독에서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다른 영동한 곳에서 찾지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승훈 안수집사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보다 / ICCC 주요 뉴스

■ 제직세미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라는 표어아래 가장 낮아진 자세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주안예교회는 시카고 레익뷰 연합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강민수 목사를 감사로 모시고 제직수련회 겸 부흥회를 가졌다. 1월 20일(금) 에서 22일(일) 까지 3일동안 총 네번의 말씀을 전하신 강민수 목사는 로마서 1:1-7 말씀을 기초해 “그리스도의 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으며 사도바울의 자신을 정의한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동일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식하며 헌신할 때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Felly in The Alley

■ Bowling Outing

On November 18, ICY held a bowling outing for sixth and seventh graders, where they had all-you-can-eat pizza at Shakey's and a fun time bowling at Winnetka Bowl. This outing was a great chance for leaders to get to know middle schoolers more and for middle schoolers to become closer to one another. As the sixth graders had recently moved up, this event w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have fellowship with other brothers and sisters their age. To make the students more involved, we planned this outing as a way for them to be more connected to the rest of ICY. We enjoyed pizza at Shakey's, where we also had the chance to talk to one another over delicious food. Afterward, we headed to Winnetka Bowl, where it was the first time for some of the middle schoolers. Groups of four were created, and everyone within their groups encouraged one another as they each took their turn to bowl. Considering



it was the first time for many, all of the students were exceptionally skilled at bowling. Many of the ICY leaders engaged in bowling with very competitive spirits, and overall everyone who attended could say that they had a great time. Being able to partake in an outing such as bowling, was a great way to bring together all the middle school students by creating a competitive but uplifting atmosphere. To be united as one body, such outings are necessary to bring ICY students toge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Katie Lee

Unwrapping Joy

■ Shoebox Event

Warm hot chocolate! Family! Friends! Presents! Christmas is here!

During this time, our EM community has embraced the ethos of love and generosity through the Christmas Child Shoebox event. A couple of us came together to create special gift boxes for children in need. These boxes are more than just presents; they represent a tangible expression of love, compassion, and solidarity with children who may be facing challenging circumstances.

The process of preparing a Christmas Child Shoebox is a thoughtful one. We kept in mind the childrens' age and gender and prepared the box and select items accordingly. From school supplies and hygiene products to small toys and personal notes of encouragement, each box is a carefully curated assortment of items designed to bring joy and meet practical needs. The diversity of the contents mirrors the diverse needs



of children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s a community, positive change is achievable, one gift at a time!

Beyond the materialistic things, donating these shoeboxes comes from God's love. His empowerment, His grace. We are just trying to spread love in any way we can. The act of giving becomes a catalyst for positive change, instilling a sense of worth and hope in the hearts of children who may be facing adversity, forever reminding us to be thankful to The Highest Above! John 1:16

Minhyk Chang

'은혜와 축복' 2023년을 돌아본다 / ICCC 주요 뉴스



■ 멕시코 단기선교

8월 6일(주일) 부터 3박4일간 멕시코 산비센테 지역에서 60여명의 선교팀이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쳤다. 매일 새벽 농장 노동자들이 출발하는 장소인 camalu 지역에 3개 조로 나아가 커피와 라면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어 각 팀별로 재활센터 방문, 미용과 의료봉사, 예배당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페인트팀은 4개조로 나눠 인근 가정을 방문하여 보수가 필요한 벽과 지붕을 페인트로 칠하며 전도의 기회로 활용했다. VBS행사에는 의료팀, 건축팀, 주방팀, 미용팀, nail art팀, face painting팀, 사진팀, 풍선 art팀, 놀이기구 팀, 그리고 솜사탕과 ice 음료 등 모두가 총출동 축제를 벌였다.

'정성과 사랑' 듬뿍 추수감사주일 오찬준비

■ 제3권사회

제3권사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오찬을 맡아 주관했다. 먼저 만나 준비과정부터 함께 일을 의논하고, 일을 분할하고 각자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며 타임라인을 정해 일하기 시작했다.

제3권사회는 필요한 테이블보를 교회에 기증하는 것보다 쓰고 빨아서 권사회에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 갖고와 쓰기로 하고 준비하였다. 통일된 테이블보를 씌워 놓으니 친교실이 단정하고 환했다.

음식을 맡은 김영희, 이계순, 이정희 권사들이 의논해서 메뉴를 정하고 회장과 몇번씩 시장을 가서 재료를 확보했다. 팬데믹 후유증으로 아직도 식품을 한군데서 많은 양을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의 선별부터 요리까지 한 마음으로 도와가며 즐거운 부역의 따뜻함이 3권사회를 하나로 만들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꽃꽂이, 설



거지, 요리, 정리하기, 도시락에 담기 등 각자 하고 싶은 일자리를 지켰다. 열심히 도우는 손길이 아름다운 합창곡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었다.

2023년은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가득찬 화목의 하나님의 한해가 되었기에 권사들은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므로, 감사의 감사로 기뻐했다. | 이예스터 기자 |



■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답게 장식된 본당에서 영거플 목장식구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처음보는 화려한 데코레이션에 아이들은 한껏 신이 났고, 예쁘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이번에 장식으로 사용된 과일과 채소들은 돌봄사역을 위해 도네이션 되었다.

■ 구자형 권사

‘청와대 연주’ 하나님 은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으로 한국음악협회에서 반주 초청이 들어와 아주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여 “청와대”에서 지난 11/4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 연주를 하였다.

뜻밖에 초청으로 매우 놀랐고, 청와대에서까지 연주를 한다는 기쁨에 맘이 몹시 들떴다. 이런 큰 영광이 멀리 미국 땅에 사는 나에게 주어진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믿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특별 인사만 초청되어 볼 수 있었던 이번 비공개 연주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려했게 잘 마치고, 이 연주회를 발판삼아 앞으로 한국에서도 연주할 기회가 더 많이 있을것 같다.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온 금년 한해도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간다. 그 마무리에 값진 청와대에서의 고국 연주회가 내 일생에 정말 못잊을 추억이 될 것 같다. 더군다나 연로하신 어머니가 막바지에 건강 이상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사히 나와 함께 동행하여 값진 연주회까지 참석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큰 축복으로 생각된다.



금년 한해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뿐인 조카의 USC 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일,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활동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두손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 Issac Choi/ Aiden Um

카네기홀 피아노 협주 감사

우리교회 ICY 소속 청소년 2명이 지난 10월 15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카네기홀에 있는 Weill Recital Hall에서 피아노 협주곡들을 연주하고 돌아왔다는 감동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그 주인공들은 Issac Choi (최종선 안수집



사와 최옥희 권사의 아들) 와 Aiden Um (엄세훈 집사와 이가이 집사의 아들) 으로, 이 두 청소년 피아니스트들은 그동안 연마한 피아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콩쿨에서 입상한적이 있는 실력과 피아니스트들이며, 더군다나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피아노 선생님 또한 우리교회 27목장의 김소연 선생님 집사로 알려져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김소연 선생님은 이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수없던 엄청난 일이었다며 눈시울을 적시었다.

이번에 카네기홀에서 협연한 오케스트라팀은 뉴욕에서 활동중인 뉴욕 아마데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팀으로, 이번 카네기홀 연주를 위하여 지난 1월에 LA와 Orange County에서 오디션을 통하여 피아노부문 청소년 피아노연주자를 선발하였는데, 총 4명의 김소연 선생님 제자들이 선발되었으며, 그중에 두명이 우리교회 ICY 청소년들이었다.

이번에 청소년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곡들은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곡가인 하이든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Issac Choi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 C Major 3악장을 연주하였고, Aiden Um은 하이든의 피아노협주곡 제11번 D Major 1악장을 연주하였다.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동서선교센터 게스트하우스 착공

주안에교회의 헌금으로 치앙마이 센터에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선교사들이 주안에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상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권 선교사들이 주안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쉼을 얻고 재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3개의 건물 중 맨 왼쪽 2층 건물이 새로 건축하게 될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별개로 1번 건물과 2번 건물 사이에 주안에 채플(가칭)을 지을 예정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12월에 착공하면 내년 6월경에 완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사 선교사 (타일랜드)



■ 선교지에서 온 편지

가장 낮은 자리, 방치된 농아들을 찾아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세계 혼란의 위기 속에 기아 수와 난민들 수의 급증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도움의 간절함을 외치는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 한해였습니다.

필요로 하는 손길이 곳곳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리랑카 농아와 장애인 선교 사역을 잊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한분 한분의 손길이 그 어느 때 보다 귀하고 소중한 울 한해였습니다.

스리랑카 사역은 2003년 10월 콜롬보 농아교회로 첫 예배 사역을 시작해 2018년 8월에 교회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콜롬보 농아교회는 스리랑카 감리교연회에 정식으로 연회에 등록이 됨으로써 스리랑카 최초의 농아교회로서 정식 교회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현지 농아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아학교에 모여있는 농아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만남과 친밀감을 통해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지에 있는 농아와 장애인 학교 지원과 아이들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극심한 가난 탓에 아이들은 늘 방치된 모습이고 고단한 삶에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가정에 아이들은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후원하는 사역의 절실함을 보았고, 2022년 1월부터 후원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월 각 가정에 20,000원씩 1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 농아 예배를 통해 어른 농인들을 위한 소통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해왔던 저로서는 교회 밖의 일들이 많이 서툴고 부족함을 매일 기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지혜와 많은 분들을 통해 응원과 도움을 주시고, 그 선한 인도하심이 지금의 자리에 저를 서 있게 하십니다. 사역을 통해 복음의 소식이 농아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린 농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찍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늘 낮은 자리는 우리 농아인들의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 품에서만큼은 가장 낮은 자를 가정 먼저 찾으시고 가장 높이 세우신다 하셨으니 스리랑카와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농아인들에게 이 기적 같은 소식이 매마른 세상에 단비처럼 촉촉이 적셔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껏 스리랑카 농아인 복음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선교 후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바라옵기는 스리랑카와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농아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선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형근 선교사 (스리랑카)



■ 벨리 21목장

다섯 가정 자녀들까지 화기애애 연말파티

21목장 5가정은 12명의 초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연말 모임을 가졌다. 두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가정에서 목장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엔 특별히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한 목장모임으로 함께 모였다.

"모든 가정이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목장이다. 모든가정이 성가대, 주방봉사, 한글학교 교사, 교회 수리등을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활기찬 목장이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주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매주 각자를 돌아보며 솔직한 간증과 결단으로 매주 새롭게 거듭나는 할렐루야 목장



이다" 라고 문수경 권사님이 소개해주셨다. 앞으로도 풍성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깨닫고, 나눔

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가정들과 소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응원한다.

| 류명수 기자 |

■ OC 24목장

푸짐한 식탁, 웃음꽃 활짝 '가을 피크닉'

OC의 24목장이 갈비 파티를 한다고 예매 끝나고 곧장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제일 좋은 피크닉 장소로 갔더니 이미 준비된 식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매가 끝나고 교회에서 준비해준 점심을 먹으면 서둘러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목원들이 있어서 주일이면 아침부터 바쁘게 뛰는 목장이다.

1부 예매 끝나고 준비한 손길 덕에 편한 자리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좋은 숲속의 바베큐 파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

누가 갈비를 산다고 했더니 이계순 권사는 돼지고기, 새우, 오징어 까지 준비해서 그동안 목원들 대접 못하고 지냈던 것을 다 베풀려고 계획을 했는지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갓은 채소 쌈, 겉절이, 도마도 살사, 배추 겉절이는 생굴을 듬뿍 넣고 상큼한 향기가 입에 침이 고인다. 오징어를 오이와 함께 달콤새콤 무치고, 음료수를 준비한 사람은 골고루 갖추어 오고, 과일을 준비한 사람은 깨끗이 씻어 치킨 타월을 깔고 그 위에 딸기랑 브루베리를 담아온 것이 정성과 사랑을 느끼게 한다.

집에서 키운 감은 정결하고 예뻐서



겉절이까지 먹기로 했다. 포도와 오렌지, 목원들의 손도 목자의 손만큼이나 푸짐하다.

식사 도중에 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내려오는 이인범 목자님 곁에 예쁜 청년이 동행해 왔다. "아직 점심을 못 먹었으니 식사 부터 주고 누가 싸이프러스까지 데려다 주어야겠는데." 목장 모임이 아니라 교회 문제 해결사 목자 덕에 모임은 점점 더 커진다.

마지막 게임을 인도하는 목자 덕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어린애처럼 웃으며 운동까지 되니 웃기에 바빠 소

화가 다 되는 기분이다. 그래 이게 목장 모임이지. 매일 밥 먹고 쫓지 않게 돌아가기에 바쁘게 목장 모임은 아니야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 생각이었을 것이다.

음식 준비 하느라 바빴을 이계순 권사는 돌아가는 목원들에게 손수 담긴 김치를 그릇 그릇 담아와서 하나씩 선물로 준다.

우리는 주안에 하나. 이 땅에서도 하나. 천국에서도 하나. 쓰레기 하나 하나 쓰레기 봉투에 주워 담으며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이예스터 기자 |